연중 제 2 주일 2016 년 1 월 17 일 (다해)

산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6 권 3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 30 분(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성경공부: 주일미사 (오전 8 시) 후 친교실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오후 5:00 – 5:30). 금 (오전 9:00 – 9:30)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8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 금요일(오후 2 – 8 시). 화, 목요일(오후 2 – 6 시).

미 사 성 가	입당 ()	봉헌 ()	성체 ()	파견 ()

새해를 맞이하며 바치는 기도

○ 시작이요 마침이신 주 예수님,
지난 한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 저희가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주시어
새해에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맡은 책임을 다하여
가정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 또한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께 바치오니
하느님의 영광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소서.
◎ 아멘.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17	이 마틸다	이 바오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1/24	유 요한	김 헬레나	성인복사
1/31	이 마틸다	이 바오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2/7	유 요한	김 헬레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제 1 독서' (한글)/ '제 2 독서' (영어).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1/10	$ 220.00	_	$620.00

*미사책 대금: $165.00

세상을 떠난 부모님, 형제 자매님을 위한 기도

세상을 떠난 부모님, 형제 자매님, 그리고 이웃을 위해 그분들이 주님품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실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공 동 체 소 식

소공동체 구역모임: 1/17 (주일) 주일미사 후

1 월 소공동체 구역모임은 1 월 17 일 주일미사 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2 월 성체조배: 2/4 (목) 오후 6 시 30 분

2 월 첫째 목요일인, 2 월 4 일 목요일 오후 6 시 저녁미사 후에 성체조배가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이나 기타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모든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금보고 영수증: 1 월 말

'2015 년 세금보고'를 위한 영수증 (Charity donation receipt)은 1 월 말부터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역확인은 이 그레이스 (한인 공동에 재무부장님)께 문의해 주십시오.

말씀의 이삭

나눔은 평화의 꿈속으로

이연종 라파엘| 연세우일치과병원장

1984년 꾸르실료 교육을 돈암동에 있는 '상지피정의 집'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여름밤 교육 중에 묵주기도를 바칠 때 유리창 밖으로 내려다보이는 수많은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저의 뇌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기까지 저 수많은 불빛만큼이나 나를 도와준 많은 사람이 있겠지!' 나를 낳아준 부모님은 물론 아껴준 가족들, 가르침을 준 스승님들, 함께 놀아준 친구들, 나를 좋게 봐주었던 이웃들이 생각났습니다.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도와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제가 미처 알지 못하지만 저의 모든 의식주에 관여해서 도움을 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또 정신적 사고 정립에 도움을 준 사람들과 믿음으로 함께해주신 신부님, 수녀님, 교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때 보은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도와준 사람에게 되돌려 줄 방법이 없다는 결론 을 내리면서, 제가 가진 지식과 기능으로 다른 사람에게 정성껏 다가가 그것을 나눈다면, 간접 보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직접 되돌려 줄 수는 없지만, 저의 희생과 손길과 정성이 필요한 사람 들에게 다가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 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잘해 줄 수 있다."(마르 14,7) 이 성경 말씀처럼 나눔을 실천하는 삶의 구체적인 방법을 품속 깊이 안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고아원, 양로원, 농어촌, 해외, 교도소 등으로 의료봉사를 다녔고, 병원에서는 탈북자들과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진료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 교도소에서 수요일마다 오전 진료를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가기 싫을 때도 있지만, 힘든 몸으로 오전 진료를 하고 나오면 학생 시절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다 나오는 것처럼 기쁨 이 넘칩니다.

해외에 진료를 가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마치 수 많은 불빛처럼 느껴져 열심히 치아를 뽑아주기도 하고, 정성껏 충치를 치료합니다. 중국 연변에서는 어마어마한 환자를 보기도 했고, 러시아에서는 자정이 넘어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캄보디 아, 페루에 가면 아침에 진료소 마당에 인파가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야경의 수많은 불빛처럼 말입니다.

밤에 힘든 진료를 마치고 잠을 청하며 누워서 천장을 올려다보면 그때 그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지고, 하느님의 도구가 된 것처럼 양심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기쁨과 행복감에 젖어 저의 의식은 평화의 꿈속으 로 사라집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사도 20,35)

<서울주보에서>

[교리상식]

미사 때 쓰는 미사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미사보의 기원은 코린토 교회에 보낸 바오로 사도의 말 씀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데, "여자가 기도를 하 거나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에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머리, 곧 자기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1 코린 11,5 참조) 거룩한 성소에서 여성 의 머리를 가리는 것은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 앞에서 인간들이 겸소하고 겸손한 몸가 짐을 지녀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